

07

기본과제 연구성과 확산회의

- 과 제 명 :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 일 시 : 2015. 12. 18(금), 16:00 ~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참 석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운영단(d-Brain),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e-호조), 한국은행



〈기본과제 연구성과 확산회의(12.18.),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회의록】 : 주요 논의사항 토론 등

▶ 인사말

김완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연구성과 확산회의의 목적은 국책연구기관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최종 연구보고서를 출판하기 전에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서 관련자들에게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추후과제 발굴 및 협

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회의순서는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신 정성호 박사께서 연구의 기본적 동기와 기대했던 목적 그리고 연구진행 과정에서 얻은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표내용

정성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표 1〉 정부 기능에 따른 COFOG 분야 및 부문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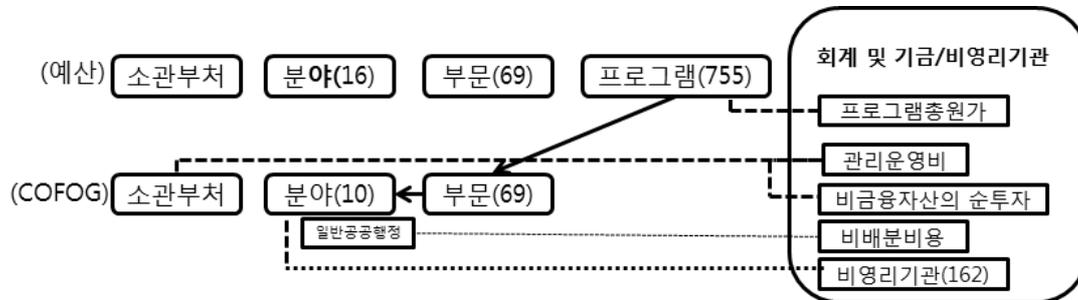
7	총지출		
701	일반 공공행정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7061	주거시설 개발
7012	해외 경제원조	7062	지역사회 시설 개발
7013	일반 서비스	7063	수도 공급
7014	기초연구	7064	가로등
7015	일반 공공행정 R&D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7	공공 채무 거래	707	보건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7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702	국방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21	군사 방어	7073	병원서비스
7022	민방위	7074	공공 보건서비스
7023	해외 군사원조	7075	보건 R&D
7024	국방 R&D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708	휴양, 문화, 종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81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7031	경찰서비스	7082	문화서비스
7032	소방서비스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7033	법원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7034	교도소	7085	휴양, 문화, 종교 R&D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7086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709	교육

704	경제활동	7091	유아 및 초등교육
7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7092	중등교육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093	2차 중등교육
7043	연료 및 에너지	7094	고등교육
7044	광업, 제조, 건설	7095	등급 외 교육
7045	운송	7096	교육 보조 서비스
7046	통신	7097	교육 R&D
7047	기타 산업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7048	경제 R&D	710	사회보호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7101	질병 및 장애
705	환경보호	7102	노령
7051	폐기물 관리	7103	유족
7052	폐수 관리	7104	가족 및 자녀
7053	공해 방지	7105	실업
7054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7106	주거
7055	환경보호 R&D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7108	사회보호 R&D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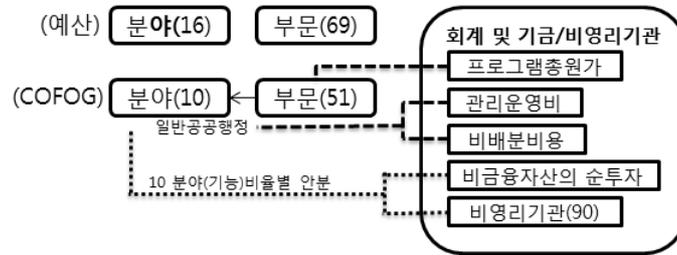
출처: IMF, 「GFSM 2014」, 2015, 제6장 부록, p. 142.

□ COFOG 산출과정(현재 및 산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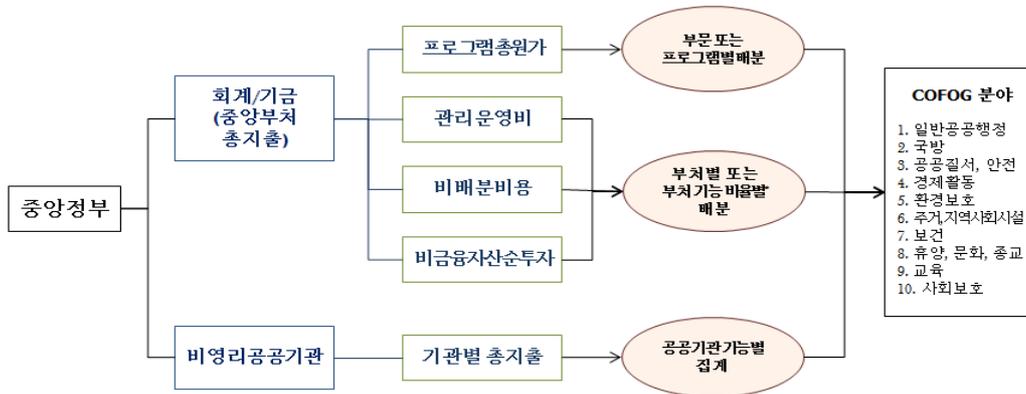
[그림 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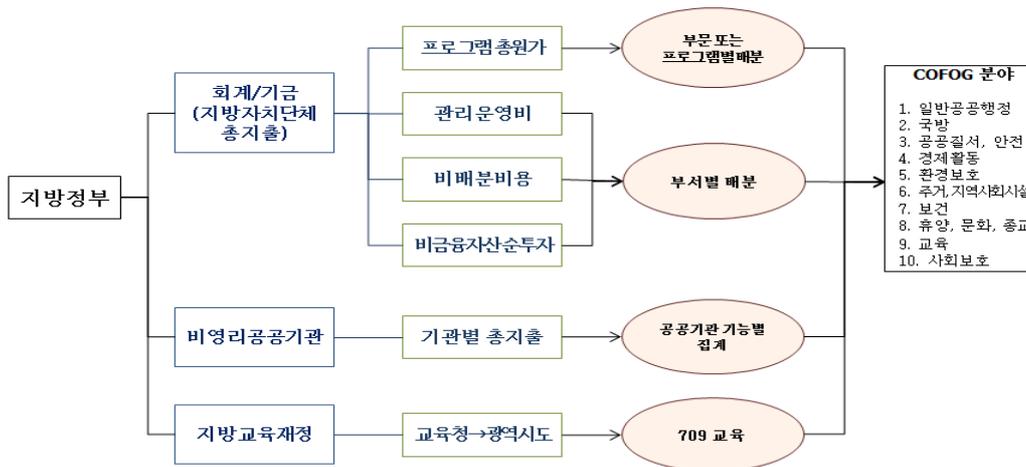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그림 3] 중앙정부 COFOG 지표 산출(안)



[그림 4]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이 과제의 동기는 한국의 기능별 재정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한국의 기능별 재정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3가지 정도의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 은행은 OECD, SNA 기준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 통계를 보고하는데, 정부단위에서 IMF, GFS 기준의 COFOG 통계를 보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이-호조시스템은 COFOG 기준의 재정통계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 매핑된 결과가 COFOG 기준에 잘 부합되는가? 세 번째, 만약 e-호조가 수행하는 기준으로 매핑하는 것이 맞다면 중앙정부도 이와 같이 매핑하는 과정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산출하게 할 수는 없을까? 자동매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 과제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NA 기준의 COFOG 통계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왜 또 다른 GFS기준의 재정통계인 COFOG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SNA 기준과 COFOG는 약간 다른 특성의 집계방식을 가지는데, SNA는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COFOG 분류를 따르고 있지만, GFS 기준 COFOG 통계는 10개 분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재정건전성과 유동성관리 측면에서 검토할 때 GFS 기준 COFOG 통계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SNA, PSDS, BPM6 등의 여러 가지 재정통계가 GFS의 COFOG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 관리에 용이한 COFOG 통계를 공식집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유사체계를 보면 열린재정, 나라살림, SOCX(사회복지 지출) 등의 통계가 있는데, COFOG과는 다른 체계를 가집니다. 각 국별로도 GFS COFOG를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집계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COFOG USA, 호주의 경우는 COFOG-A, 캐나다의 경우는 C-COFOG 등으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용이하며 최근의 동향을 반영한 COFOG-K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현재 재정통계의 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부문별 총원가로 집계하는 반면, 중앙은 프로그램별 총원가로 집계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총원가는 755개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9개 부문중에서 51개 부문을 기초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앙의 경우는 관리운영비가 소관부처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리운영비가 일반행정으로 분류되는 등의 중앙과 지방간 분류기준이 상이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비영리기관의 경우, 중앙은 기능별로 경제활동 등의 주된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지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중앙·지방 간 차이가 존재하고, 기준에 대한 구분도 서로 상이하여 국제기준의 COFOG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서로 통계집계 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바로 통계를 발표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지표를 직접 들여다 보니 제대로 된 분류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질서 및 안전이 국방으로 집계되는 등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로직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차이와 기준의 상이함 등은 커다란 체계의 변경이 아니므로, 중앙·지방 간 재정체계의 통일 및 계정과목의 분류를 약간만 조정하여서 COFOG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재정통계의 조각을 서로 잘 맞추고 분류를 재조정하는 적은 수고로, 국제 기준에도 부합되고 재정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도 용이한 COFOG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방은 부문별로 집계하고 중앙은 프로그램별로 집계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통계집계를 더 세분화된 통계인 프로그램보다는 세부사업, 세부사업보다는 세 세사업으로 나누면 더 좋지만 정부기능상의 분류나 기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세분화분류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대부분 수준인 부문별 집계로 중앙과 지방의 통계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작성자의 자의성을 피하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준에 맞는 COFOG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이 집계하고 있는 통계의 기능별 기준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집계가능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등등의 작업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구시대적 집계방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의 방법도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OFOG을 산출하기 위해서 d-brain과 e-호조 그리고 한국은행 등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 토론내용

이재정(디지털예산회계운영단)

학교회계가 기성회계입니까?

국립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d-brain에 있던 학교회계 관련 통계 중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즉, 국립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수업료 등이 모두

제외되어 d-brain의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재정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나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세입은 교육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즉, 국립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면서 실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수업료 등의 수입으로 잡히던 것이 법인자체의 수입·지출로 처리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만 국가회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재무재표에 해당하는 정부규모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김성재(한국은행)

학교회계는 2개가 있는데, 기성회계와 학교회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성회계는 대학교에 해당되고 학교회계는 초·중·고에 해당됩니다. 최근 기성회계는 대학회계로 법령에 의해 전환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대학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회계는 금액이 매우 크며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은행에서는 월간 통합재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및 공공기관을 모두 다 취합해서 만든 GFS와 같은 개념의 통계자료입니다. 다만, 월간 통합재정은 현재 86 GFS 기준으로 발표하고, 연간 결산자료는 01 GFS 기준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둘 간의 기준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OECD의 보고서를 보니 분기별 GFS 자료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기별 GFS 자료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재(한국은행)

한국은행은 SNA 08기준으로 국내통계와 국제통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게시되는 업로드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나 현재는 2013년 기능별 재정통계가 OECD와 국내에 모두 게시되어 있

습니다.

현재 분기별 GFS 자료는 집계하지 않고 있으나, SNA 기준의 월간재정동향을 시험가동 중이고, 86 GFS가 아니라 발생주의 기준의 01 GFS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공공부문까지 통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통계집계를 잘하는 편이고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만 취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집계를 매우 잘 하고 있으나 86 GFS와 01 GFS는 포괄범위가 달라서 월간과 연간의 집계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01 GFS기준으로 통일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새로 2014 GFS기준이 발표되었지만 이것은 실제로 01 GFS기준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이 나오게 된 배경이 93 SNA에서 08 SNA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지 측면의 변화는 없고 R&D와 무기구입비 등이 소비에서 투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정통계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기존에는 재화 및 용역의 사용이었다면 새로운 기준에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계정과목이 일부 바뀐 측면이 존재합니다.

김완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 과제를 발표했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도 열린재정, 나라살림 등 예산 기준의 통계를 비교적 잘 발표하는데 구태여 COFOG까지 집계를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간자료가 존재하는데, 분기별 자료가 과연 필요한가? 그렇다면 분기에 발표하는 것이 예산의 조기집행을 점검하거나 어느 분야로 예산이 집중되는지를 강제할 수 있는 면을 제외하고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NA기준과 COFOG기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때, 한국은행의 경우는 SNA기준의 재정통계 집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정당국의 경우 또다른 통계인 COFOG기준의 재정통계를 집계해야 하는지? 이 통계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계열의 이유도 있고 SNA와 GFS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지출이 어디로 가느냐에 관심을 둔다고 할 때, 예산에서 이미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결산에 따른 COFOG 통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세운 예산안 금액과 결산자료 금액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새로운 지표를 집계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재(한국은행)

현재 분기별 COFOG은 없습니다. 분기별 재정동향의 경우 수지측면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느 분야에 지출비중이 달라졌는지? 중앙과 지방 간에 서로 배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재정당국자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분기 COFOG을 발표하면 좋은데, COFOG의 경우 시계열을 연결하는 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시점만을 고려하여 통계를 집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 과거시계열까지 내려간다면 집계 기준이 달라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COFOG통계는 국제기구에서 인용도 많이 하고 있으며 자원배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통계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COFOG을 대분류와 더불어 중분류까지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예·결산 자료의 차이를 매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보건분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분도 결합되면서 COFOG 기준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최상규(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COFOG 통계를 집계했을 때 이 통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기준의 통계집계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당국이 열린재정을 오픈해서 발표하지만, 이렇게 집계된 큰 단위의 재정통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집계적 통계보다는 특정 자치단체나 특정부문의 통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 통계집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을 봐도 16개에서 10개로 변경되었다는 것 이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김성재(한국은행)

COFOG통계는 국가의 기능별 재정통계인데, 우리나라의 16개 분야가 과거에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었던 것이고, 현재는 10개의 분야로 기준이 변경되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

준으로 변경해서 국제기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제기준은 16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변경되었고, 한국은행은 SNA를 기준으로 OECD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GFS기준으로 IMF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COFOG이 국제적으로 유동성 관리 측면과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집계 및 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COFOG을 잘 집계하고 있는 곳은 EU입니다. EU의 경우는 27개국의 기능별 분류를 통해서 국가간 비교를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최상규(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그렇다면 현재 체계로 COFOG을 집계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성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최성재(한국은행)

현재의 체계에서도 약간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COFOG을 발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몇 가지만 수정하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디지털예산회계운영단)

d-Brain에는 자료가 없는데 비영리기관 자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성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우리 센터에서 모두 자료를 받아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성자(한국은행)

현재 우리나라는 IMF에 COFOG을 보고하지 않고 있지만, EU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COFOG을 대분류뿐만 아니라 중분류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는 시점에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관리과와 한국은행이 함께 시험편제를 해서 자료비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년도의 GFS 기준의 COFOG 자료는 현재 한국은행과 기재부 모두 가지고 있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약간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COFOG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디지털예산회계운영단)

중앙과 지방, 비영리기관 등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수작업으로 다 맞춰서 내부거래를 제거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성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현재는 우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243개 지자체의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내부거래를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허수영(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

저희는 지출부분에서만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나간 곳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중앙에서 내려온 수입도 마찬가지로 지출부분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합니다.

이재정(디지털예산회계운영단), 김성자(한국은행)

우선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관리과에서 먼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재부가 먼저 기획을 시작하면 한국은행이나 d-Brain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함께 기술적 논의와 진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재(한국은행)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e-호조도 생기고 d-Brain도 만들어져서 기초통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간 발생주의 자료는 나오는데, 분기에는 현금주의 통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분기에 발생주의 통계가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정(디지털예산회계운영단)

현재 분기 발생주의 통계는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산 집중기이며, 결산통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9월에 중간점검을 하고 12월부터 다음해 5월 책자 발간 시까지 집중적으로 오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5~6개월간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만을 분기 발생주의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규(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국회의원들도 재정통계를 12월 31일 집계해서 다음날 바로 자료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로 자료를 집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류를 점검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예산결산을 비롯하여 재무관련 통계를 모두 산출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가집계된 자료를 모두 점검하는데 4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오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성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COFOG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COFOG 통계 집계의 실무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가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분기나 반기에 1회씩이라도 정례적인 모임가지고 향후 진행과정을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추후 고려되어야 할 대안 모색

기획재정부

- COFOG 공식 작성을 위한 대안 모색필요

행정자치부

- 인력운영비 배분개선 필요(현재: 일반공공행정으로만 집계)
- 비영리공공기관(90)의 기능별 분류체계 개선 필요(현재: 규모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안분)
 - * FY 2015부터 이를 적용하여 지표 제출

교육부

- FY 2015부터 GFS(COFOG 포함)지표 행정자치부에 제출(지역재정통합통계)

한국은행

- GFS 기준과 SNA 기준의 차이 검증 필요
- COFOG 통계 보고서 GFS 기준과의 차이 주석으로 명시 필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각 부처와 한국은행)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정례적 모임 등)으로 지표의 정합성 지속적 검토